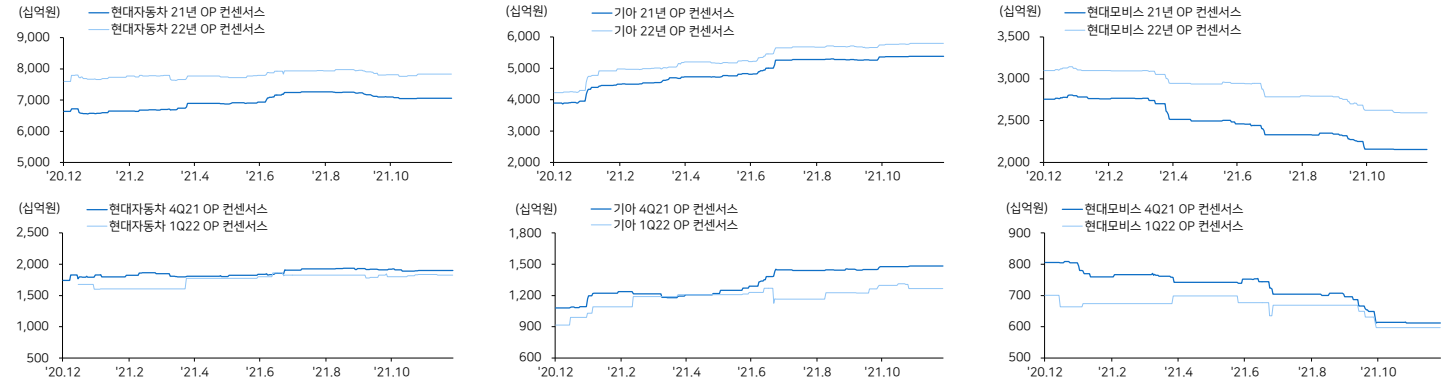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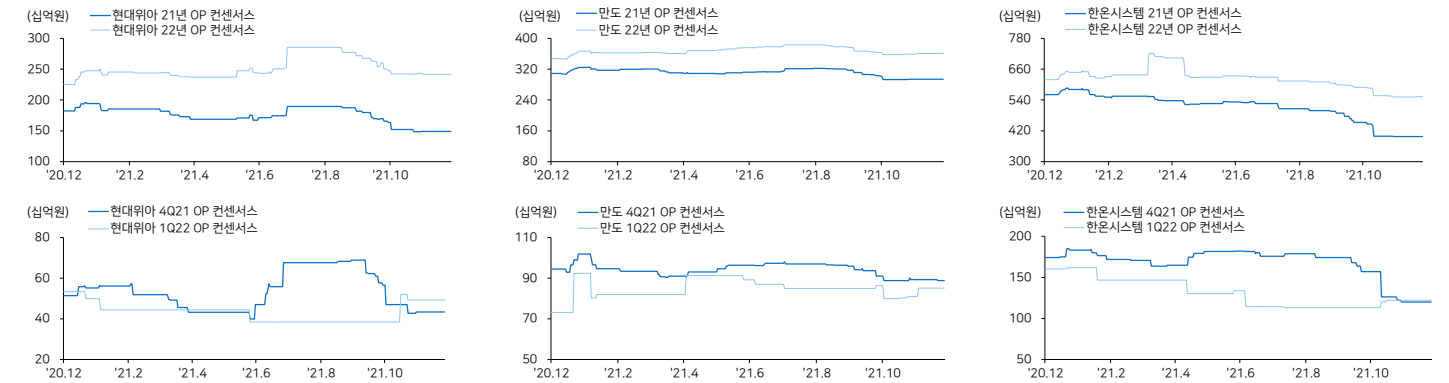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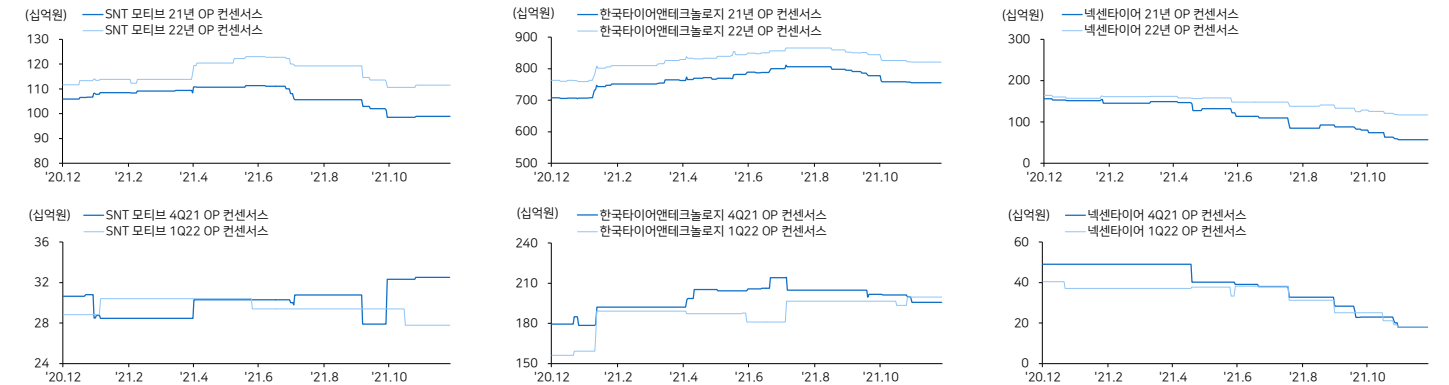
###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현대차,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 '급브레이크' (조선일보)

현대자동차가 2025년 출시를 목표로 진행해왔던 제네시스 수소차 프로젝트를 중단할. 내부 감사 결과 차세대 수소차 핵심 기술의 기술력과 시장성이 미비하다는 평가가 내려져 연료전지 담당부서의 역할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https://bit.ly/3JqtRWg>

### 신차의 눈물... 반도체 부족에 올해 신차종 판매목표 미달 (파이낸셜뉴스)

현대차의 아이오닉5, 스타리아, 캐스퍼, 기아의 EV6 등 올해 신차들이 결국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차질이 신차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수급 불균형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https://bit.ly/3sDa1bj>

### 13 battery gigafactories coming to the US by 2025 (electrek)

미국 에너지부는 '미국에서 이미 가동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 외에 13개의 추가 공장이 발표되었으며 향후 5년 이내에 가동될 것으로 예상, 13개 공장 중 8개는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의 합작 투자를' 발표함. <https://bit.ly/3puppVC>

### Baidu's Jidu Auto to mass produce its 'robot' electric vehicles in 2023 (Reuters)

바이두 CEO 로빈 리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Baidu와 중국 자동차 업체 Geely의 JV '지두오'가 '23년 '자율주행 레벨4의 로보트 카' 양산에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함. <https://reut.rs/3FC9hai>

### 현대차 '입는 로봇' 내년 상용화...기아, 자동차 생산 현장에 투입 (매일경제)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 '체스(CEX)'와 '베스(VEX)'는 현재 국내 기아 공장 일부 공정에서 적용 중.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는 '30년 2600억달러로 전망되어 글로벌 기업들의 로봇 투자가 빨라지는 중. <https://bit.ly/3scFnyJ>

### 아우디·벤츠·BMW...생산 줄였는데도 수익 늘어, 왜? (이데일리)

아우디·메르세데스-벤츠·BMW 등 독일 자동차 '빅3'의 차량 한 대당 수익이 올해 생산 감소에도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량을 대폭 줄였으나, 수요가 증가하면서 차량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 <https://bit.ly/3JmsG0F>

### Tesla owners in China drove 3.72B km, reduced carbon emissions by 850k tons in 11 months (Teslarati)

12월 24일 Tesla China는 중국의 연간 신규 에너지 기어오 보고서를 발표. 50만 명 이상의 Tesla 소유자가 '21년 1-11월 간 37억 2천만 km 주행거리를 축적, 약 85만 톤의 탄소 배출량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https://bit.ly/3er73hr>

### China's BYD, Momenta enter venture for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Reuters)

중국 완성차 업체 BYD는 자율주행 스타트업 Momenta와 1,570만 달러 규모의 JV 설립, BYD 자동차 모델에 자율주행 기능(LV.2)을 탑재함. Momenta는 SAIC Motors와 협력하여 상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 중. <https://reut.rs/3z3fdin>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